

멜번대교구한인천주교회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of Melbourne



주임신부 : 윤기선 요셉 (Rev. Kiseun Joseph Youn)
M) 0402 686 560

주 소 : 89 Bond St. Ivanhoe VIC 3079

사목회장 : 최미라 소화 데레사 M) 0404 854 266

사무실 : 월, 수 11am ~ 2pm, 금 11am~3pm

주일미사 : 일요일 오전 11시

Tel: 03 9440 9515, Mob: 0423 532 073

어린이미사: 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kccmel@gmail.com

고해성사 : 주일 미사 15분 전

kccmel@cam.org.au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

www.kccmelbourne.org.au

예비자교리: Zoom/대면 교리

[www.facebook.com/ KoreanCatholic-church](https://www.facebook.com/KoreanCatholic-church)

어린이 안전 & 복지에 관한 문제는 Child Safety Officers (3명)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초대

제 1 독서 ㉮ 지혜서 3,1-9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ㄴ-39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화답송

시편 126(125),1-2ㄴ.2ㄷㄹ-3.4-5.6(◎ 5)

복음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알렐루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
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알렐루야

복음 ㄲ 루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
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전례봉사안내

	9월 21일 (일)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 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8일 (일) (녹) 연중 제 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10월 5일 (일) (녹) 연중 제 27주일
미사 해설	김지나 노엘라	원선희 안젤라	조옥주 안젤라
제 1 독서	청년부	연승재 베드로	정성룡 세례자 요한
제 2 독서	청년부	박영주 글라라	손은희 크리스티나
보편지향기도	청년부	이승은 루시아	배미주 요안나
봉헌	3반	4반	5반
성체분배자	정성룡 세례자 요한	김수환 요한	정성룡 세례자 요한
복사	김영광 프란치스코 권민서 로사리아, 이애린 에리카	박하선 미카엘 이은유 아네스, 홍세나 가브리엘라	정태오 다니엘 권민서 로사리아, 이유진 스테파니아
성가	입당 289 예물준비 218, 210	성체 285, 61	파견 287
미사곡	자비송 : 325 아멘 : 377	보편지향기도 : 370 주님의 기도 : 387	거룩하시도다 : 327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90 신앙의 신비여 : 373 하느님의 어린양 : 328

작은 십자가

이상수 사도요한 신부 | 대철중학교 교목

찬미 예수님!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거룩한 뿌리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수많은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순교성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복음 말씀처럼, 순교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제가 소임하고 있는 대철중학교와 연관이 있는 소년 성인 유대철 베드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께서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순교의 월계관을 쓰신 분입니다. 14살이면 지금 우리 중학생 아이들 또래입니다. 병인박해 당시, 유대철 베드로는 부친을 포함한 많은 교우가 투옥되자 스스로 포도청에 자수했습니다. 포졸들이 쇠 담뱃대 통으로 허벅지 살을 뜯어내고, 벌겋게 달군 숯덩이를 입에 넣겠다고 협박해도, 그는 “이쯤으로 제가 신앙을 버릴 줄 아세요?” 하며 당당히 맞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14번의 고문과 수많은 매질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 굳건한 신앙이야말로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는 복음 말씀의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 나의 이기심,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싶은 순간들 앞에서 매일매일 ‘작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작은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배우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에 먼저 “미안해” 하고 사과하는 용기, 회사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양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십자가’들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끔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년 유대철 베드로 성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날짜	반 봉 사	안 내
9/21	3 반	반 봉사자
9/28	4 반	반 봉사자
10/5	5 반	반 봉사자

♣ 베드로회 봉사 일정표 ♣		
날짜	봉사	메뉴
9/21	3 반	육개장/커피/티/비스킷
9/28	4 반	커피/티/비스킷
10/5	5 반	커피/티/비스킷

◆ 본 당 단 체 모 임 안 내 ◆			
단 체	일 시 및 장 소		문 의
사 목 회	매월 넷째 주일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반장 모임	매월 첫째 주일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대철 베드로 복사단 어머니회	추후 공지		손은희 크리스티나 0433 242 390
마니피캇 성 가 대	주일 미사 전 커뮤니티 홀 10:15am 까지		문소영 소피아 0406 174 746
청 년 부	추후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주일학교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홀 및 사제관		임연희 보나 0457 258 066
주일학교 자모회	추후공지		김나영 안젤라 0423 094 789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 자비의 모후	추후 공지	+
	천상의 모후	추후 공지	전수련 엠마누엘라 0423 614 598
	위로자의 모후	추후 공지	박영주 글라라 0451 988 047
성서반	매 주일 Zoom 8pm		왕현경 스텔라 0421 700 386
연령회	추후공지		조옥주 안젤라 0430 282 737
어린이 복지회	추후 공지		최미라 소화 데레사 0404 854 266 이상원 베네딕토 0403 189 387

9월 반 모 임 안 내 요한 3,13-17		
반	일시 / 장소	반장 연락처
1반	9월 13일 (토) 9:00pm Zoom	박비주 세실리아 0430 527 837
2 & 7 반	9월 13일 (토) 6:30pm Zoom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3 반	9월 12일 (금) 6:00pm 신인균 토마스 가정	김장현 라자로 0451 155 551
4, 6, 8 반	9월 14일 (일) 12:15pm 성당 커뮤니티 홀	김수환 요한 0433 800 461
5 반	9월 13일 (토) 7:00pm Zoom	이승은 루시아 0431 208 178
6 & 8 반	4반과 함께	김수환 요한 0430 217 100
7 반	2반과 함께	김도훈 요셉 0433 228 075

♥ 우리들의 정 성 ♥			
	8월 31일	9월 7일	9월 14일
현 금	\$585.70	\$575.80	\$533.20
교 무 금	\$1,850.00	\$930.00	\$1,020.00
감사헌금	+	+	+
합 계	\$2,435.70	\$1,505.80	\$1,553.20
성모동산 기금	\$33,069.51	\$33,069.51	\$33,069.51
☺ 감 사 합 니 다 ☺			

교무금 납부자



성재정 클레오파 & 김상미 스테파니아
김도훈 요셉 & 이화수 바르바라
김송군 니콜라오 & 정수영 글라라
남현준 다니엘 & 원선희 안젤라
최재권 다미아노 & 박비주 세실리아
신훈민 루카 & 김지나 노엘라

교무금 납부는 가톨릭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은 재정부(박상현 라파엘)를 통하여 책정하십니다.
0478 510 331 kccm.treasury@gmail.com

- ▶ 교무금은 매 주일 미사 전 성당 입구 테이블,
미사 후 사무실 에서 접수합니다.
- ▶ 교무금을 성당계좌로 보내실 때는 Reference에
보내신 분의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십니다.

A/C Name: Korean Catholic Community
Bank:CDF(NAB) BSB:083347 A/C No: 574926224

◆ 2025년도 사목 방침

‘순례와 친교’

순례) 각 신심 단체별 3, 4, 6, 7, 8, 9, 10월 중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시니어 봄 나들이#

- 일시: 10월 4일(토)

- 장소: St Macatan's Catholic Church(순례 성당)/ Mornington Botanical Rose Gardens

- 성당에 모여서 20인승 관광버스로 9시 30분에 단체로 출발합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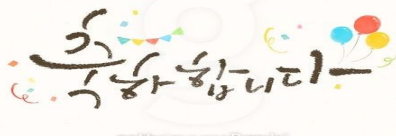
◆ 오늘의 봉사

미사안내는 3반 입니다.

미사 전) 미사 안내와 간식 준비

미사 후) 뒷정리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커뮤니티 홀에서 점심 식사 후 O, X퀴즈를 진행합니다.

즐거운 본당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품(1~5등) : 바우처

◆ 예비자 교리 교육

세례식) 12월 25일 (목요일)

교리) 매주 일요일 8pm Zoom

신자분들은 기도와 전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추석(10월5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자매를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당 입구에 봉헌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 10월 5일 11시 주일미사

제출) 10월 1일까지 사무실

◆ 시니어 디지털 학교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하여 디지털/모바일 관련하여 강의가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매주 미사 후 커뮤니티 홀(핸드폰 필요)

◆ 어린이 미사 안내

일시) 매주 12:30pm

대상) 중학생 이하 어린아이들

일시	행사 일정	성당 오시는길 <MELWAY31 D6>
9월 21일(일) 9월 28일(일) 10월 5일(일)	본당의 날 <어린이미사 없음> 전민족 미사(본당) 전민족 미사(교구)	[250번 버스 (월요일~일요일 운행)] [350번 버스 (월요일~금요일 운행)] 승차: Queen St/ Lt Collins St Lonsdale St, Exhibition St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전례상식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름으로 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외국 교회에 견주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충효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 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그 결과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다. 신해 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 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일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시어 이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하여 103명을 시성하셨다. 이에 따라 그동안 9월 26일에 지냈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굿뉴스>

<p>물리치료 Physiotherapy Clinic 곽민경 비아 0402 048 412</p>	<p>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필라테스: 임산부, 체형교정 코어트레이닝 HICAPS 청구 가능 (GP 소견서, 개인보험)</p>	<p>음악 개인 레슨</p> <div>  피아노 하미경 루시아 0420 556 031 </div> <div>  바이올린 하미현 모니카 0451 996 032 </div>
<p>Chimac the Korean Bistro 전영은 카타리나 0415 786 768</p>	<p>K-BBQ & Fried Chicken 95 Upper Heidelberg Rd Ivanhoe VIC 3079</p>	<p>엑심 국제 물류 장석일 에릭 0420 934 061</p> <div> <p>수출입화물 국제운송 및 통관</p>  <p>exim@eximex.com.au www.eximex.com.au</p> </div>